

吳茱萸湯으로 호전된 少陰病 여드름 1례

신정민* · 현준영#

서울 서초구 방배4동 1808번지 안석빌딩 4층*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08-13 인수환의원#

A Case Report of Soeumbyeong Acne Vulgaris Patient Treated with Osuyu-tang (Wuzhuyu-tang, 吳茱萸湯)

Jung-min Shin* · Jun-yeong Hyun#

Kyung-hee cheong-a Oriental medical clinic, Banbae4-dong, Seocho-gu, Seoul, Korea*
In-su Oriental medical clinic, Darelim-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ffect of Osuyu-tang on an acne vulgaris which a Soeumbyeong patient has.

Methods : This is a case report on a female patient who has been suffering from acne vulgaris which is not controlled by normal dermatological treatments.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Osuyu-tang was provided for fifty days.

Results : After a series of Osuyu-tang treatments, the patient's symptoms and result of KAGS improved.

Conclusions : This case study showed an effectiveness of using Osuyu-tang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on acne.

Key words : Osuyu-tang(吳茱萸湯, 吳茱萸湯),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oeumbyeong(少陰病), Acne

* 교신저자 : 신정민.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1808 경희청환의원. Kyung-hee cheong-a Oriental medical clinic, Banbae4-dong, Seocho-gu, Seoul, Korea. E-mail : hiranya75@naver.com
· 접수 : 2013년 11월 18일 · 수정 : 2013년 12월 01일 · 채택 : 2013년 12월 18일

緒 論

『傷寒論』의 大陽病, 少陽病, 陽明病, 大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提綱에 따라 六經病證으로 구별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체계를 六經診斷體系라 한다. 이는 단순히 환자의 호소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병이 이르게 된 원인, 환자의 몸과 마음의 통시적 상태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접근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¹⁾

여드름은 한의학에서 面癩의 분류에 해당하며²⁾ 기존의 변증논치 개념으로는 肺經風熱, 脾胃濕熱, 衝任不調 등의 범주로 접근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清熱시키거나 補血하는 처방이 많이 사용되었다.³⁾

새로운 六經診斷體系에 따라 종래 溫裏시키는 처방으로 알려진 吳茱萸湯으로 완고한 여드름을 호전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六經提綱을 개선시킨 증례가 있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證 例

1. 환자명 : 최 ○ ○
2. 성별/연령 : 여성 / 20세
3. 키/몸무게 : 162cm / 47kg
4. 결혼여부/직업 : 미혼 / 대학생
5. 주소증(c/c) : 만성 염증성 여드름

6. 발병일(o/s) : 중학교 1학년 때부터

7. 현병력(history)

고2-고3 시기에 심해졌다. 몸이 피곤하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생리는 초경 때부터 불규칙했고 자주 건너 뛰는 경우도 있다. 고3때는 한 달간 생리를 한 적도 있다. 냉이 많은 편이다. 레이저, PDT(Photodynamic Therapy), 여드름 약, 외용제 등 다양한 치료를 반복했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고 악화되었다.

8. 가족력 : 별무

9. 과거력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 증상 발생했다.

10.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11. 문진사항

Table 2. 참고

12. 진단 및 평가 방법

1) 六經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3. 참고

본 학회의 六經診斷체계에 따라 환자의 六經을 감별 진단하였다. 六經提綱과 條文의 변화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다.

2) 여드름 평가방법

치료 전·후 촬영한 안면 사진을 토대로 한

국형 여드름 중증도 평가(Korean acne grading system)에 따라 평가하였다.(Table 1. 참고)

Table 1. Korean Acne Grade System⁴⁾

Grade	Description
1	Papules* ≤10
2	Papules 11~30
3	Papules ≥ 31, nodules † ≤10
4	Nodules 11~20±mild ongoing scars
5	Nodules 21~30±mild ongoing scars
6	Nodules ≥ 31±severe ongoing scars±sinus tract

*Papule:acne <5mm, †Nodule:acne>5mm.

13. 치료경과

1) 경과

Table 3. 참고

2) 평가 지표 변화

Table 4. 참고

Table 2. 身體 諸般 狀況

1.	입맛이 별로 없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편이다. 편식이 심하다. 밥, 야채 종류를 싫어하고 생선, 해조류는 아예 안 먹는다. 특히 생선은 집에서 조리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극도로 싫어한다.(생선을 왜 안 먹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어렸을 때 시장에서 생선 눈을 보게 되었는데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2. 消化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편이다.
3. 口渴	2-4컵 정도의 물을 목이 마를 때만 찬물로 조금씩 먹는 편이다. 물마시고 가끔 속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다.
4. 汗出	땀은 별로 안 나는 편이다.
5. 大便	2-3일에 1회씩 단단한 형태의 변을 본다. 찬 것, 우유, 맥주 등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잘하는 편이고 한번 하면 오래가는 편이다.
6. 小便	3-4회 (귀찮아서 잘 안 가게 된다.)
7. 寒熱	더위추위 크게 상관없다.
8. 頭面	입안이나 입술이 마를 때가 자주 있다. 입술이 육안 상으로도 많이 부르터 있다. 오전 기상시 어지러울 때가 많다. 실제로 일어나다가 실신한 적도 있다.
9. 呼吸	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잔기침을 자주한다. 콧물이 자주 날 때가 있고 가래가 자주 낀다.
10. 胸	피곤하거나 조금만 신경 쓰면 자주 심장이 두근거린다.
11. 睡眠	대체로 잠을 잘 자는 편이나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가끔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
12. 身體	손발은 차다.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다. 체력이 약한 편이다.
13. 스트레스 대응 방식	1) 스트레스 받으면 주로 집에서 잠을 잔다. 2) 직접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회피해버린다. 화나거나 짜증이 나면 방을 어지럽히는 양상을 보인다.

Table 3. 六經診斷 및 治療經過

		2013년 1월 22일
육경진단	1) 피곤할 때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말하고 실제로 만지면 많이 아파하는 상태로 頭項 痛을 보고 大陽病으로 진단하였다. - 頭項強痛	
조문진단	1) 육안상 입술이 부르티었고 늘 건조하다. 2) 오전에 어지럽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낄 경우가 많고 목이 따끔하고 아플 때도 많다. - 胸脇苦滿 3) 긴장되어 있는 이미지, 본인이 말을 잘 안하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대신해 준다. 도도하고 냉소적인 이미지에서 小柴胡湯을 선방하였다.	
진단명	○ 大陽病 傷寒 中風	
관련조문	㉔96. 傷寒五六日, .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脇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胸下痞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小柴胡湯主之.	
처방	小柴胡湯 (1日 3回 복용, 1회 복용량 120cc)	
	[처방구성 및 1일 용량] 柴胡 16g 半夏 12g 黃芩 6g 生薑 6g 大棗 8g 人參 6g 甘草 6g	
재진일	小柴胡湯 복용 20일 후	2013년 2월 27일
치료경과	1) 여드름은 계속 악화 되고 있다. 2) 어깨도 계속 아프고 몸이 너무 피곤하다. 3) 小柴胡湯을 복용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배가 아프고 설사를 여러 번 하고 있다. 소변횟수는 늘지 않았다. 小柴胡湯을 먹고 갈증이 생기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한다.	
육경진단	1) 학교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항상 2-3시간씩 낮잠을 자고 약속자체를 거의 잡지 않고 집에서 게임하고 책보는 것을 좋아한다. 틈만 나면 누우려고 한다. 어머니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체력이 어렸을 때부터 약한 편이었고 쉽게 누워버리고 수험생일 때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으나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보는 편이었다. 고집이 세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상황에 어머니에게 짜증을 많이 낸다. 2) 한창때 나이의 대학생이 오전에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보다는 집으로 바로 와서 일단 2-3시간정도를 낮잠을 잔 후에 그 다음 일과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약하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고 약속을 가능하면 잡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상에서 少陰病의 脉微細 但欲寐를 확인했다.	
조문진단	평소 소변횟수가 4회 정도여서 소변량을 늘릴 생각으로 바뀐 진단인 少陰病의 豬苓湯으로 전방하였다.	
진단명	㉔ 少陰病	
관련조문	㉔319. 少陰病, 下利六七日, 欬而嘔渴, 心煩不得眠者, 豬苓湯主之.	
처방	豬苓湯 40일 (1日 3回 복용, 1회 복용량 120cc)	
	[처방구성 및 1일 용량]	

6g 澤瀉 6g 猪苓 6g 滑石 6g 阿膠 6g		
재진일	猪苓湯 복용 40일 후	2013년 4월 9일
치료경과	1) 여드름 상태는 큰 변화가 없다. 2) 피로도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3) 갈증은 많이 좋아졌으나 소변량은 늘지 않고 일 4회 정도를 유지한다.	
육경진단	上同	
조문진단	猪苓湯으로 소변량이 전혀 늘지 않아서 소변을 자세하게 몰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소변횟수는 적었고 여드름이 생긴 시점과는 무관했다. 그래서 다른 少陰病 처방 중에서 때때로 성질을 내는 모습과 수면상태를 보고 黃連阿膠湯을 선방했다.	
진단명	少陰病	
관련조문	㉔303. 少陰病, 得之二三日, 以上心中煩不得臥者, 黃連阿膠湯主之.	
처방	黃連阿膠湯 15일 (1日 3回 복용, 1회 복용량 120cc)	
	[처방구성 및 1일 용량] 茯苓 6g 澤瀉 6g 猪苓 6g 滑石 6g 阿膠 6g	

재진일	黃連阿膠湯 복용 15일 후	2013년 4월 24일
치료경과	1) 여드름 상태는 큰 변화가 없다. 2) 피로감의 변화는 잘 모르겠다. 3) 생선, 해초를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다고 하고 지금 같아서는 죽어도 못 먹겠다고 완강하게 말한다. 못 먹게 된 계기를 물어보니 어렸을 때 시장에서 생선의 눈을 보고 혐오스럽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 생선을 안 먹게 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집안에서 생선냄새가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생선을 먹으려면 가족들은 본인이 없을 때 몰래 먹어야 한다. 食穀欲嘔를 보고 吳茱萸湯으로 전방.	
육경진단	上同	
조문진단	1) 초기에 어깨가 자주 굳어서 불편하다고 했고 실제로 촉진했을 때도 많이 아파해서 大陽病으로 진단했으나 이 환자의 경우는 손발이 차가운 것(手足逆冷)이 어깨까지 퍼져서 어깨가 굳게 되는 吳茱萸湯의 병증으로 파악되었다. 大陽病 환자들은 달리 어깨 아픈 부분을 크게 불편해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는 모습(脈浮)은 보이지 않아 감별점이 될 수 있다. -手足逆冷 2) 어깨 아픈 것 보다는 체력이 약해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방이 무척 지저분해서 어머니가 청소를 자주 하게 된다. -煩躁 3) 大陽病人 어머니는 딸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리고 하고 간섭이 많은데 딸은 어머니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까다로워서 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티격태격하는 모습 연출했다. 혐오하는 음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를 보이는 食穀欲嘔의 성향이 강하게 보여 이를 확인하고 吳茱萸湯을 선방했다. -食穀欲嘔 4) 환자는 힘든 상황을 가능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불만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하도록 하는 패턴을 보였다. -脈微細, 煩躁欲死	

	5) 초기에 3-4회 치료 반복 후 여드름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올 때마다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말을 걸면 냉소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으나 정작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 병원에 전달이 되도록 하는 성향을 많이 보였다. 여드름 치료하려고 와서 더 심해졌는데 화가 안 나느냐고 물어보니 화가 나지만 여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으나 다 효과가 없었고 이번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진단명	少陰病	
관련조문	㉔309.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	
처방	吳茱萸湯 (1日 3回 복용, 1회 복용량 120cc)	
	[처방구성 및 1일 용량] 生薑 12g 吳茱萸 6g 人參 6g 大棗 8g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50일 후	2013년 6월 14일
치료경과	1) 얼굴에 올라오는 것이 현저히 줄고 붉은 자국도 많이 줄었다. 압출을 해보면 현재 낭종성 여드름은 사라지고 약간의 면포와 가벼운 화농이 되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Fig. 1. 참고) 2) 컨디션이 많이 개선되어 피곤함이 덜하고 예전보다 바깥활동을 많이 늘렸다. 3) 까다로운 성격이라 지나치게 쓴 吳茱萸湯을 먹을까 걱정을 했으나 오히려 먹을 만하다고 한다. 한약을 복용한 후 생리를 매달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Fig. 1. 오수유탕 복용 전후 안면 사진



Table 4. 평가 지표 변화

지표	2013년 2월 2일	2013년 6월 14일
KAGS grade	3	2

考 察

六經診斷은 『傷寒論』의 六經提綱에 근거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을 여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접근한다. 여섯 개의 범주는 단순히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그 질병이 이르게 된 환자의 삶이 녹아 있다. 본 증례의 경우도 少陰病의 脈微細(은둔하려 하고

생각이 많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기세⁵⁾)와 吳茱萸湯의 煩躁欲死라는 삶의 패턴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吳茱萸湯이라는, 일견 面疱와는 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처방도 환자의 몸에 들어맞아 전향적인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었다.

증례 여드름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증상의 양상에 따른 변증에 의한 경우와 四象醫學에 따른 체질적 접근이 대다수였다. 六經診斷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본 증례에서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과 관련된 만성화된 질환에 있어 六經診斷體系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大陽病과 少陰病은 체력적인 모습을 진단 기준으로 삼을 때, 大陽病의 陽浮而陰弱과 少陰病의 脈微細가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많고 본 증례의 초기 진단도 같은 실수를 범했다. 또한 어깨와 뒷목의 통증은 大陽病 提綱에 있지만(頭項強痛) 그것이 곧 大陽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례였다. 같은 어깨와 뒷목의 통증도 증례의 경우처럼 少陰病 吳茱萸湯의 手足逆冷이 심화되어 비슷한 통증을 나타낼 수도 있다. 때문에 증상이나 경향성, 혹은 조문의 구절 하나에 따라 처방을 선정하기 보다는 보다 폭넓게 환자의 몸을 만들어 낸 전체적인 패턴과 질병의 입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六經診斷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少陰病의 여드름은 다른 六經의 여드름과는 달리 부서진 여러 개의 면포와 농이 뒤섞여 있고 만지면 말랑말랑한 1cm이상의 고

름집인 낭종을 형성하는 낭종성 여드름(모공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이 많았다. 少陰病 환자들은 다른 六經에 비해 AMTS(Auto Microneedle Therapy System), 필링, 레이저 등과 같이 각질을 탈락시켜 피지를 배출하고 재생을 유도하려는 방식과 피지선에 영향을 주는 PDT 치료 등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 여러 여드름 치료법을 진행했을 때 호전도가 낮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少陰病 여드름은 컨디션과 연관되어 호악을 반복하게 되고 피로도 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少陰病 한약을 통해 컨디션을 증진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증례 환자의 경우도 초기에는 AMTS와 IPL(Intense Pulsed Light)등의 외치 위주로 치료를 진행을 했으나 치료를 반복할수록 악화되는 패턴을 보여 외치를 중단하고 한약복용과 함께 압출만 해주는 치료만 하였다.

少陰病 환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한 양상을 많이 보이고 여드름의 형태도 곁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보다는 함몰된 형태의 병변을 나타낸다. 少陰病 환자의 여드름에서 결절은 잘 관찰되지 않는데 피부에도 脈微細 但欲寐한 少陰病의 提綱이 반영되어 재생을 포기해 버린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大陽病 結胸의 여드름의 경우에는 낭종과 결절(단단한 여드름)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완고한 형태의 여드름이라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계란의 바위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

가을 때가 많았다. 이 경우에도 少陰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치요법에 대한 반응은 불량했다.

이와 같은 六經에 따른 여드름의 양상 구별은 아직은 임상적 경향성 정도이지만 더욱 연구가 진척된다면 임상적 쓰임이 높은 새로운 여드름진단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六經診斷을 통해 여드름을 치료하면 여드름 원인, 치료, 예후를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를 이끌어 내고 근본 치료에 근접한 여드름 치료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여드름 모양, 발생 시기 등 단편적으로 여드름을 분류하는 양방피부과학의 방식과는 달리 욱경이나 분노와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項強, 腹滿, 胸滿 등의 신체의 상태와 기세 등 여드름의 원인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드름 명칭을 새로 명명하고 각 六經별 여드름 특징을 연구해 한의학만의 독자적인 여드름학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본 증례 환자의 여드름도 少陰病 분노형(煩躁) 여드름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結 論

1. 六經診斷體系에 따라 여드름 환자에게 少陰病 吳茱萸湯을 투여한 결과 KAGS는 치료 전 grade 3에서 grade 2로 변화하였고,

脈微細의 少陰病 提綱도 호전되었다.

2. 六經診斷體系에 따른 질병의 접근은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1.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2. 주현아, 배현진, 황충연. 여드름의 東·西醫學的 文獻 考察. 한방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12;25(2):7-8.
3. 이성환. 면포 환자 54례에 대한 변증 분류.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지. 2005;1(1):115.
4. 성경제, 노영석, 최응호, 오정준, 이주홍, 이선우, 김낙인.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AGS).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42(10):1241-7.
5. 노영범, 오지현, 류희창. 『傷寒論』 脈의 고문자적 해석과 임상운용을 통한 올바른 이해.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6. 허준.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5:476.
7. 대한 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여문각. 2001:461-464
8. 이승인. 新古方撰次. 군자출판사. 2012:371-400.
9. 장중경. 康平傷寒論.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